

나는 바이오 테러리스트인가?

결핵치료중인 환자들에 대한 제언

글 김박승규(국립마산병원 결핵연구소장)

어느 결핵환자의 죽음

나는 bio-terrorist인가?

결핵은 치료보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

총무외과전문의로 결핵병원에서 일하는 이유

결핵병원에서의 일상

우리나라 결핵관리에 대한 제언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특히,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대이라크전 명분이었다. 실체가 불분명한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연일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결핵을 이야기하다가 새삼 웬 '생화학무기' 이야기인가 하는 독자가 있을 것 같다. 2001년 북한의 군사력을 소개하는 '북한군 전력'은 북한의 생물무기엔 탄저균, 보툴리누스,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장티푸스, 황열병 등이 포함된다고 전한다. 생물무기의 대부분이 급성 전염성 질환의 원인균들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전염된 후 서서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는 급만성 질환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감각한 듯 느껴진다. 특히 난치성 결핵의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워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과 함께 결핵은 공기를 통해 쉽게 전염된다는 점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국립전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는 결핵균을 바이오테러 병원체 "C" 등급에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생물 테러리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생물 테러리즘의 역사

군인과 시민들을 살상하기 위해 독과 질병을 사용한 사례는 17세기 박테리아가 발견되기 훨씬 전인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346년 이탈리아 제노바의 카파항을 포위해 공격하던 타르타르인들은 페스트(흑사병)가 돌발하자 작전을 포기했으며, 철수하기 전 투석기로 동료의 시신을 성안으로 넣었다. 1518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도 코르테스는 멕시코원주민 아즈텍족에게 천연두를 퍼뜨려 1521년 완승을 거두었으며 1530년대 잉카문명 전역에 코르테스가 도착한 후 천연두가 창궐했다. 1710년 러시아군은 스웨덴과 전쟁 중 전염병을 확산시키기 위해 페스트 희생자 시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1940년대에 일본은 생물무기를 실험하고 중국과 만주에서 사용했다. 1942년 영국은 스코틀랜드 연안 그루이나드 섬에서 양에 대해 탄저균 실험을 실시했다.

왜 Bio-terrorist인가

생물테러는 이상 열거한 병원균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짧은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들의 잘못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80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또 한 해에 약 300만 명이 사망하는 결핵은 어떠한가? 전염성 질환으로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 결핵이다.

일선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면서, 또한 결핵으로 죽어 가는 환자를 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참기 어려울 때가 많다. 분명 누군가로부터 결핵균이 전염되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그 누군가가 '누구' 인지를 모른다. 그 누군가가 또한 자신이 누구에게 결핵을 전염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모른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누군가를 나는 'Bio-terrorist'라 부른다.

전염력을 가진 결핵환자가 치료를 소홀히 하면 한 해에 12~15명의 무고한 이웃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 무고한 이웃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의 약 0.2%인 9만 명 정도가 전염력을 가진 결핵환자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결핵치료 중인 사람도 있지만 여전



그림 □ 공보혁

히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Bio-terrorist'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장기 복약의 어려움

대부분의 결핵은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1개월 이내에 전염력이 소실되며, 나머지 5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꾸준히 복약하면 거의 100% 가까이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결핵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참으로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다. 진단된 후 치료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복약해야 하는 질병이 몇 가지나 되겠는가? 특히, 난치성 결핵으로 진단되면 2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복약해야 하는데 결핵 이외에 어떤 질병이 있을까?

혹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고혈압치료의 목적은 병의 근본적 치료보다는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 독자들이 상상하는 또 다른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병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 년 혹은 어쩌면 평생 복약하는 경우일 것이다. 또한 가족 중에 그러한 질병으로 복약한다고 할 때 그 분들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매일 복약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기는 할 지언정 부작용 때문에 매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위해 복약하는 경우는 다르다. 우선 치료의 목적이 다르다. 즉,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결핵치료를 받는 환자는 4종류의 항결핵제가 포함된 9~15알을 복

약해야 한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한 움큼이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듯 하다. 이를 매일 6개월 이상 복용해야 한다. 약 부작용으로 온 몸에 반점이 생기면서 가렵거나, 속이 쓰리거나, 팔·다리가 아프거나 혹은 간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과정을 이겨내면 치료될 수 있다. 둘째는 환자 자신이 치료를 소홀히 하면 자신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염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치료를 소홀히 한다고 전염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생각하면 나만 앓다가 천국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결핵치료를 소홀히 하면 살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고한 이웃들에게 전염을 시킨다. 처음에는 치료가 가능한 결핵균을 퍼뜨린다. 하지만 나중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결핵균을 전염시키게 된다. 치료를 소홀히 하는 동안 몸 속의 결핵균은 생존을 위해 번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며칠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Bio-terrorist가 되는 것이다.

균은 의지로 끝까지 치료를

내가 근무하는 국립마산결핵병원에

는 전국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된 환자들이 입원 혹은 외래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병력을 들어보면 많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난치성 결핵으로 진행된 경우이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함께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난치성 결핵균을 퍼뜨렸을까 하는 걱정을 갖게 된다.

무슨 병이던지 원해서 걸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병에 걸리면 병의 치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환자가 져야 할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는 환자가 효과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부작용이 적지 않은 항결핵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치료가 될 수 있는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여!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지는 잘 알고 있다. 말 그대로 투병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료에 임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으로 믿는다. '나는 Bio-terrorist가 아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한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卍